

경험으로 담은 책만들기의 모든 것

《편집에서 제책까지》 펴낸 홍우동씨

“독자입장에서 가독성과 판독성을 고려한 서체를 개발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최근 《편집에서 제책까지》(지문사)라는 방대한 양의 편집실무 지침서를 출간하고 지난 2월24일에는 제18회 한국출판학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동국전산(주) 홍우동 사장(55, 서체연구가)은 35년이라는 세월동안 교과서 활자를 비롯, 우리 활자체의 개발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사람이다.

한글 12서체 개발

집안어른의 권유로 출판일에 입문한 이후 독학으로 출판의 전과정을 깨우친 그는 대한교과서(주)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글 12서체를 개발했다. 서체 하나를 개발하는 데 보통 3년에서 5년이 소요된 셈이다.

“중이가 귀하던 시절 서당에서 처음 ‘글자’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낀 글자에 대한 매력에 제 삶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글자만 보면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는 그는 자신의 직업적 생리를 자랑스러워 한다.

홍사장이 최근 펴낸 《편집에서 제책까지》는 편집, 교정, 조판, 제판, 인쇄, 제책, 용지, 원가 등 출판편집인들의 실무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책이다. 실물 그대로 원색인쇄된 내용으로 꾸며진 이 책은 편집 인쇄의 표준과 원칙은 물론 원가절감과 거래처의

선정 기준에 이르기까지 책 제작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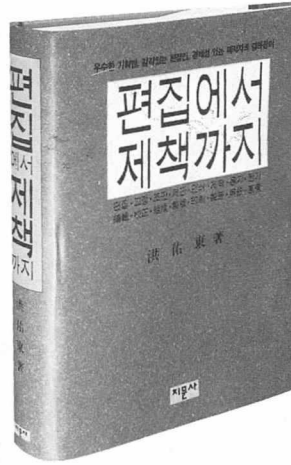
“요즈음 출간되는 책들을 보면 편집의 기본지식에 소홀하고 원칙과 금칙이 지켜지지 않은 책들이 많습니다. 편집에 있어서의 원칙과 금칙은 철저히 독자들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책 제작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홍사장의 이번 책은 그가 82년 출간한 실무지침서인 《편집과 인쇄》 이후 두번째 저서이다. 편집에 관한 교재가 드문 국내 현실 속에서 그가 펴낸 《편집과 인쇄》는 출판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고 그 공로로 83년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출판편집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일반화되고 인쇄기계와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이제 인쇄는 ‘종이 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편집과 인쇄》이후 13년만에 출간

그는 이번 책을 만드는데만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원래 첫번째 저서를 내고 6년만에 새로운 책을 내기로 했던 것이 늦어진 것이다. 책이 늦어진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책의 성격상 워낙 꼼꼼하게 공을 들여야 하는 데다 수많은 주변 지식을 함께 습득해야 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아무리 사장이라도 개인적인 작업을 업무시간에 해서는 안된다’는 그의 개인적인 원칙 때문이다.



“요즈음 책은 편집의 기본지식에 소홀한 책들이 많습니다. 철저한 편집의 원칙과 금칙은 책 제작의 기본이 돼야 합니다.”



홍우동 사장.

“가족들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4년동안 휴일이나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내 본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도 책의 운명상 실무 지침서는 해당 분야의 변화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제부터는 적어도 3년에 한번씩은 개정판을 낼 생각입니다.”

홍사장은 자신이 몇년에 걸쳐 개발한 서체가 ‘표준’으로 인정받을 때와 편집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서체를 인정해 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또한 독학으

로 자수성가한 자신의 출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대학원에 나가 강의할 때도 큰 보람을 느낀다.

요즈음 출판계에 뛰어들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피동적인 자세를 우려하면서 변화의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회사를 만들기 위해 방향의 다각화를 비롯한 사업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홍사장은 지금도 일과 시간에는 사업에, 일과후에는 서체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허연 기자

싱싱한 일본 남자가 쓰는 알미운 아내는 한국인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긴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일본 남자 히라이 히사시 씨. TV특파원으로 서울에 머무는 동안 사귀게 된, 툭툭 튀는 한국 여자와, 한 쌍을 이루기까지 치러 낸 수많은 사연들을 엮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 걸까요? 아내는 성격 칼칼하고 때로는 경우도 없이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사람, 남편은 천성이 확실한 게 없는 모호한 일본 사람인 탓입니다. 언어 한 토막, 갈치 한 토막이 따로 구워 올려지는 이들의 밥상. 생선 취향에도 민족성이 반영되는 것일까요? 상식이 다른 두나라, 선명하게 대립되는 두개의 문화를 끌어 안고 별이는 해프닝과 그 대립을 하나의 '재미'로 받아들이기까지 3년 여의 시간을 실감나게 담은 한솔밥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얻은 깨달음으로 "이제는 서로 다른 것이 즐겁다"는 두 사람. 민족이니 남녀니 하는 문제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알미운 한국인!'을 주장하고 나선 애처가 일본 남편이 농도 짙게 한국 여자를 꼬집습니다.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길까요? 히라이 히사시 지음 / 정가: 6,000원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